



보도 일시	<산내체> 2022. 9. 13.(화)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9. 13.(화) 14:20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안태용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장희수 (044-204-7551)

## 에이팩(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계기, 한국 중소기업 정책 홍보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적극 전개

□ 조주현 차관, 에이팩(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한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등 정책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노력 등 전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9.9(금) ~ 9.10(토) 양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팩(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 중소기업 정책 홍보와 더불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에이팩(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인구 40%, 국내총생산(GDP) 59%, 교역량 50%의 세계최대 경제협의체

한국 중소기업 정책 홍보로 ❶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정책 노력 및 성과, ❷ 중소기업의 탈탄소 노력과 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도시 송도에 「K-생명공학(바이오)랩 허브」 구축, 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금융지원 노력 등을 에이팩(APEC) 회원국과 공유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개최지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동영상에 에이팩(APEC) 본회의에서 상영해 회원국 대표단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회원국 대표들과 별도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이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공동 언론보도문 (Joint Release)에 합의했다.

동 보도문은 에이펙(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결과물이 아니며, 그동안 에이펙(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취지로 합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세계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무력 사용의 중단과 조건 없는 철군 요구를 담고 있다.



September 12, 2022

### Joint Release on the Occasion of the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The following was released by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Occasion of the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September 9-10, 2022.*

We express our unwavering support for 에이펙(APEC) and our deep appreciation to Thailand, as APEC Chair in 2022, for delivering a successful host year. We commend Thailand's leadership in hosting the 2022 APE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nisterial Meeting and fostering cooperation to support MSMEs.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disrupted the global economy, creating a burden on MSMEs, which often lack the tools to mitigate risk. We are commit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our reg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and united against Russia's aggression, which undermine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strongly urge Russia to immediately cease its use of force and completely and unconditionally withdraw all its military forces from Ukrainian territory, consistent with the legally binding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6 March].